

사단법인 한국지형학회지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형학회의 연구 윤리와 진실성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 진실성의 검증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의 정의)

1.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연구결과 등의 지적재산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이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3.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으로 공헌하거나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으로 공헌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연구의 진실성)

1.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아이디어 도출, 설계, 진행, 결과 분석 등의 과정 전반에 걸쳐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에서 위조, 변조, 표절, 사기, 조작,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이중 논문 게재 등을 부정행위로 간주하는데, 연구자는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 또는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않아야 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
4. 연구자는 연구 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기관의 이익과 상충할 경우, 이를 공표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

제4조(연구의 진실성 검증)

회원, 심사위원, 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규정 위반을 알게 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학회장과 협의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는 7인 이내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학회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연구의 진실성 여부를 판정한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선임된 윤리위원 가운데 투표로 결정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1. 진실성 검증 결과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밝혀질 경우,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탑재된 해당 논문 파일을 삭제한다.
2. 제재를 받은 연구자는 향후 3년 이내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3. 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편집위원회에 보관한다.

4. 관련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